

신도 최고품계 ‘선혜품계’ 첫 품서 종단 신도 지도자로서 역할 당부

조계종 포교원, 18일 조계사서 품서식... 260여 명 품서받아

“종단의 부름으로 여기 있는 선혜품계 품서자들은 다시 초발심을 일으켜 그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스스로 지혜를 깊이 쌓아, 화엄보살 10위로 설하신 선혜의 경지를 체득해 모든 이를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신도품계제도의 최고단계인 선혜 품계자들이 처음으로 배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선혜품계 특례 품서식’을 거행했다.

품서식은 헌화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낭독, 심선계 수지, 치사, 품서의례 대장발원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심선업도(十善業道)를 행하는 것을 계율로 삼은 심선계를 살하며 수계자들이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신도 지도자인 선혜품계가 정식 시행하게 된 것은 종단 포교 역사에서 큰 경사다. 종단이 출범 당시 종현정신과 규정에 따라 선포한 사부대중 공동체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오늘 품수를 계기로 오랜 기간 해온 자신의 역할을 더 높이고, 일상 속 심심함상에도 진력을 주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고 고승 받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임을 다시금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2011년 이후 신도조직화를 위해 시행된 신도품계제도는 명실공히 사부대중 공동체를 향한 종단의 방침이고 종단 신도조직화의 첫 발걸음”이라며 “오늘 교육과 품서식 대상자로 확정돼 이 자리에 오신 불자들은 종단의 자랑이자 보배”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는 종단의 신도지도자들로서 위의를 바로 세우며 지금까지 노력해 온 각양각처의 분야에서 종단 발전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선혜 품계 품서 대상자 357명 가운데 260여 명이 참석해 금색 신도 휘장을 받았다.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광명회 포교사단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권익현 초대 국회 정각회장이 대표로 휘장을 받았으며,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선진규·백창기 전 중앙신도회장 등이 선혜 품계를 품수했다. 선혜 품계 품수자는 종단 신도 지도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종단 신도 교육·조직화 초석 품서자, 신도 지도인력 자격

선진규 前 중앙신도회장(정토원 원장)은 “불교를 위해 헌신한 불자들을 위해 조계종에서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을 마련했다. 이번 품수식을 계기로 전국의 불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불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계종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오래보다 더 높은 단계인 심선계를 받았으므로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수식에 앞서 포교원은 선혜품계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지도자교육 특례과정을 실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지도자의 자세’를, 前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이 ‘대승보살 원력’을 주제로 특례교육을 진행했다.

이나는 기자



(사진 오른쪽부터)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광명회 포교사단장, 권익현 초대 국회 정각회장이 대표로 휘장을 받고 있다.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가치 충분”

이상해 교수, 24일 등재추진위 세미나서 주장

“한국의 전통산사는 조선 후기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사상과 신앙으로 수행, 예배, 생활 등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지속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정성 및 완전성을 충족시킨다.” 한국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요건인 ‘탁월한 보편 가치(OUV)’에 충족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4월 24일 공주마곡사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가 주최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교수는 한국 전통산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산적 가치를 분석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추진 중인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

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이 교수는 “전각을 포함해서 불교 교리, 의례, 역사, 정신, 승속이 아우러져 있는 곳

- 동아시아 불교 교류 궤적 담겨
- 자연·문화 융합 이뤄 '독특'
- 수행·생활 공간으로 보존돼
- '탁월한 보편 가치'에 충족

이 한국의 산사”라면서 △동아시아 불교 교류 입축 △불교 신앙 전승 과정 확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기적 가람 배치 △조선 후기 불교 신앙, 수행, 의례의 전승 등을 공통적 유산적 가치로 꼽았다.

세월호의 두 번째 기적을 꿈꾸다

생명평화 기원 걷기명상

4월 21일 100회차 맞아

시민사회·붓다로살자 등 참여

2013년 5월부터 매주 진행해

통일·노사·전쟁 등 주제 다양

“쇄신을 위한 기도이자 실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회원과 중앙종무기관 총무원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은 4월 21일 100회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4월 21일 정오 서울 조계사, 60명의 사람들이 커다랗게 원을 두르고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회와 기적을 바라는 서원의 기도문을 읽고 내려간 이들은 형형색색 손 피켓을 들고 이내 일주문을 나와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회원과 중앙종무기관 총무원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은 4월 21일 100회 걷기 명상을 진행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생명 존중 사회를 기원했다.

이날 걷기 명상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진상규명과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쇄신이다. 걷기명상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쇄신을 위한 수행이자 기도이며 실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주문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수송공원 등을 걸으며 세월호가 생명평화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해 걷기명상을 했다”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를 중심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해왔다.

걷기명상은 ‘내 일터부터 평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그간 △남북이 대화합시다 △개성공단 재개합시다 △이산가족 상봉합시다 △철도문제 대화로 풀시다 등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이뤄졌다.

박상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그물코팀장은 “앞으로는 대중적 동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추대법회, 5월 7일 개최 10일 임회서 확정...추대위 구성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 스님의 추대 법회가 오는 5월 7일 오전11시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4월10일 임회에서 방장추대위를 구성하고 5월 7일 방장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장추대위 대표는 해인사 주지 선해,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백, 전 조계종 종회의장 황적 스님이 공동으로 맡게 됐다.

해인총림 방장추대위는 “조계종 원로 의장 밑을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각 총림의 방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대표 스님을 비롯해 제방 대덕 스님들이 다수 초청될 것”이라며 “지역 기관 대표들도 두루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인총림은 지난 3월 7일 방장 선출을 위한 선종총회에서 원각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로 추대했으며 3월 17일 조계종 임시 선종총회를 통해 추대가 확정됐다.

한편,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는 4월 22일 열린 35차 회의에서 성공 스님이 제기한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해인사 방장 자격심사’와 ‘법관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소청 심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신성민 기자

○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宗) 종정 영산당 일공 대중사 ○

大韓佛敎 圓融宗 宗正 靈山堂 一空 大宗師 영결식에 同參하여주시신 각 종단 총무원장 대덕 큰스님과 각기관 단체장등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우선 지면을 통하여 합장 정례하여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원융종 전 종도는 열반하신 종정예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종도가 화합하여 원융무애 사상을 면면히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큰스님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초재 4월22일(음) 3월 4일 수요일
- 2재 4월29일(음) 3월 11일 수요일
- 3재 5월 6일(음) 3월 18일 수요일
- 4재 5월 13일(음) 3월 25일 수요일
- 5재 5월 20일(음) 4월 3일 수요일
- 6재 5월 27일(음) 4월 10일 수요일
- 49재 6월 3일(음) 4월 17일 수요일

장소 : 원융종 총본산 원융사

장 위 원 원

- 증 명 : 유념 법신
- 고 문 : 평신, 성인, 체의, 성관, 법성
- 자문위원 : 서의현 큰스님, 전문덕 큰스님, 흥파 큰스님, 전남정 큰스님, 도산 큰스님
- 봉행위원장 : 總務院長 원찬당 진호
- 부위원장 : 대전
- 봉행위원 : 원승, 도현, 해민, 해광, 해운, 체정, 체선, 체명, 선덕, 도선, 효진, 법성, 월암, 원덕.
- 집행위원장 : 원건
- 부위원장 : 석우 성수
- 집행위원 : 태상, 담원, 혜철, 우담, 성근, 의성, 추광, 법봉, 지성, 해일, 무영
- 문 도
- 은상좌 : 체의, 체법, 체명, 체선, 체관, 체상, 체원, 체성, 체두, 체은, 체호, 체민.
- 법상좌 : 원산, 원선, 원정, 원법, 원건, 원담, 원성, 원관, 원보, 원홍, 원조, 원해, 원행, 원봉, 원대, 원진, 원덕, 원경, 원승, 원무, 원모, 원강, 원당, 원원, 원 은.
- 손상좌 : 해안, 진여, 진월, 진광, 해천, 세성, 세안, 금파, 화동, 해안, 선국, 선일, 성근, 연하, 진곡, 진을, 진영, 진홍, 진원, 연하, 불성, 홍법, 명진, 보경, 보각, 보운, 보선, 보타, 혜은, 보민, 보문, 보련, 보화, 보연, 보성, 보해, 보륜, 진조, 보명, 보광, 보현, 보경.
- 속가상좌 (세속인연) : 배석재, 배계자, 배진수, 배귀미, 박승식, 은희중, 김병국, 이은선, 일공 문도회, 비구니회, 원융사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 자은합창단,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회.